

# “순천만국가정원, 자연·생명 어우러진 생태 놀이터 변신”

5월 가정의달 맞이 동물원 관람 재개 내달 3-5일 파충류·곤충 등 특별 전시 전문 사육사 도슨트·OX 퀴즈 등 ‘풍성’ 가족 체류형 복합 생태문화 공간 우뚝

5월 가정의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이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지는 거대한 생태 놀이터로 변신한다.

27일 순천만국가정원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조치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관람이 통제됐던 어린이동물원의 조류 관람을 지난 25일부터 재개했다.

행형색새 북꽃이 만개한 정원을 배경으로 다시 우아한 자태를 드러낸 홍학 무리와 화려한 앵무새들은 어린이동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핵심 포인트로 꼽힌다.

본격적인 어린이날 연휴인 오는 5월3-5일 사흘간은 어린이동물원 일대에서 특별 전시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쉴 틈 없이 펼쳐진다.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동물원을 방문한 아이들이 다람쥐원상을 구경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단순한 ‘관람’을 넘어 아이들이 동식물과 ‘공감’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에 방점을 찍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작은 친구들의 커다란 세상’은 레오파드게코, 블랙킹스네이크, 화이트트리포크 등 파충류와 양서류, 장수풍뎅이를 비롯

한 곤충류 등 총 37종 100마리의 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거북이 등껍질 관찰, 파충류 허물

만져보기, 곤충 생태 밀착 관찰 등 생생함 넘치는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전문 사육사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들려주는 흥미로운 ‘생태 도슨트 프로그램’이 더해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관람객이 다 함께 참여하는 ‘알쏭달쏭 OX 퀴즈’도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특별 전시된 동물들을 주제로 퀴즈를 풀며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밖에 움직이는 곤충 만들기, 장수풍뎅이 유충 집 꾸미기, 곤충 만화경 만들기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풍성한 상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홍학 관람 재개와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동물원을 단순한 전시 시설이 아닌 체험과 교육이 결합된 생태 공간으로 한층 진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 복지를 기반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정원형 생태교육 플랫폼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가족 체류형 관광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열 기자

## 장성군, 전남·광주 통합 ‘9대 핵심 사업’ 확정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속병원 등 특별시장 후보·정당에 공식 전달

장성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9대 핵심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초 7개 분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꾸려 40건의 대응 과제를 발굴한 뒤, 심층 검토를 거쳐 9건의 핵심 과제를 엄선했다.

이 과제들은 통합 맞춤형 책자로 제작돼 최근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들과 각 정당에 공식 전

달했다.

최우선 과제는 ‘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으로, 국립축산식품부를 유치해 삼계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등과 연계한 완성형 농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첨단3지구와 장성역을 잇는 ‘트랩(노면전차)’을 도입하고, 황룡면 장산리에서 광주 임곡을 잇는 광역도로를 확·포장해 실질적인 메가시티 생활권 형성을 앞당긴다.

청년 정주 여건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자율주행 택시와 로봇 배송, 스타트업 파크가 결합된 ‘스마트 혁신 청년복합타운’을 조성해 청년 인구를 적극

유입할 계획이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500병상 규모의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속병원’ 설립을 통해 정책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며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선다.

이밖에 상무대와 연계한 육군종합군수·정보통신학교 유치,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벨트 조성, AI 농업 거점 조성 등도 중점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심우정 장성부군수는 “군이 제안한 이번 핵심 사업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의 상생 및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담양군, 올해 군민의 상·명예군민 최종 4명 선정

담양군이 지역 발전과 군의 명예를 드높인 헌신적인 일꾼을 발굴해 ‘2026년 담양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증’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영예의 수상자는 군민의 상 지역개발과 체육진흥 부문 분상 2명, 특별상 1명을 비롯해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1명 등 4명이다.

지역개발 부문 분상을 안은 조문익 이장은 적극적인 지역개발 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형 나눔을 꾸준히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체육진흥 부문 분상 수상자인 김해상씨는 16년간 군 체조협회장으로 재임하며 여성과 어린 신장군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앞장섰다.

특별상은 29년간 재경향우회 발전에 헌신하



조문익

김해상

이완신

김은천

며 청년회장 등을 역임하고, 탁월한 섬김의 지도력으로 향우회 화합과 내실화를 이끈 이완신 씨에게 돌아갔다.

명예군민증 대상자로 선정된 김은천씨는 해외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한편, 담양 지역 폭우 피해 당시 긴급 모금 2천500만원을 기부하고 답례품까지 다시 기탁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한편, 담양군은 오는 5월3일 열리는 ‘제47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 무대에서 군민의 상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의 노고를 기릴 예정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 화순군 ‘제20회 대한민국 풍란대전’ 성료

화순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난 전시 행사인 ‘제20회 대한민국 풍란대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풍란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전국에 알렸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사)대한민국풍란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풍란대전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화순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20회째를 이룬 대회는 화순에서 처음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풍란 애호가와 관람객들의 발길이 대거 이어졌다.

전시장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우수 작품들이 은은한 향기와 고고한 자태를 뽐냈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친 시상식에서는 김승준씨의 출품작 ‘천관’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임현남씨의 ‘계림’과 송미란씨의 ‘태평금’은 특별대상을, ‘금기린’ 등 5점은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며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풍란 심기 체험’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이 전시와 어우러지며 큰 호응을 얻었다.

/화순=이병철 기자

## 곡성군, 명품 농대 ‘AI 스마트팜 설계’ 수강생 선발

내달 6일까지 20명 모집

원격 제어 실습 키트 제공

곡성군이 미래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갈 스마트농업 핵심 인재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제16기 곡성명품농업대학 AI 활용 스마트팜 설계 과정’ 신입생 20명을 오는 5월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농가의 고비용 스마트팜 진입장

벽을 낮추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맞춤형 농장을 설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단기 집중 실무 교육이다.

교육은 오는 6월8일부터 30일까지 총 7회(2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토경재배 스마트팜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화 원격 제어 실습, AI 플랫폼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수강생 전원에게 실습용 키트를 제공해 자신의 농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원격 제어 시스템을 직접 구축해보는 실전형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 자격은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으로, 원활한 실습을 위해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관련 영농 경력이나 자격증 보유자는 선발 시 우대받으며, 입학원서와 PC 활용 자기진단표 등을 갖춰 농업기술센터나 각 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고비용 스마트팜의 장벽을 낮추고 농업인이 AI를 활용하여 스스로 농장을 설계하는 혁신적인 실습 과정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농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열정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고흥군, 道 ‘예쁜정원 콘테스트’ 참가 공모

30일까지 개인·생활권 정원 접수

우수작 7점 표창·민간정원 권장

고흥군이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 관광의 기반이 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가 주관하는 ‘예쁜정원 콘테스트’ 참가 작품을 본격 공모한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콘테스트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해당 정원 소재지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도내 정원을 직접 가꾸고 보유한 개인과 단체, 기업 등으로, 이미 전남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된 곳은 형평성을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부문은 개인 주택 주변에 조성한 ‘개인 정원’과 카페나 도서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운 ‘생활권 정원’ 2개 분야로 나뉜다.

심사위원회는 디자인의 심미성, 식재 및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와 유지 관리 상태, 주변 생태 경관과의 조화 등을 꼼꼼히 평가해 우수 정원 7점을 최종 선정하고 전남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콘테스트 우수작으로 선정된 정원은 향후 전남도 민간정원 등록 절차를 밟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며, 현재 고흥군에는 지난 2021년 콘테스트 우수작에 이름을 올린 ‘우림원(사진)’을 비롯해 총 5곳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참여로 지역 곳곳에 숨겨진 명품 정원들이 널리 알려지고,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 여수시 ‘민원 전담부서’ 전국 혁신 모델 뜬다

행안부 컨설팅서 우수사례 발표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민원 전담부서’ 운영 체계가 정부의 행정 혁신 우수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곡성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민원공무원 보호 우수사례 현장컨설팅’에 참석해 전담부서 중심의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 여수시는 그동안 여러 부서로 분산됐던 민원 대응을 총괄 부서로 일원화했다.

특히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들을 통합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부서 간 책임 회피인 ‘핑퐁 민원’을 획기적으

로 줄였다.

또한 악성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복합민원 현장행정과 관리카드를 활용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 등 시민 체감형 책임 행정 시책도 참석한 타 지자체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안부는 여수시 모델이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 공무원 보호를 아우르는 훌륭한 모델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의 최우선에 반영되도록 선제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통 플랫폼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